

## 미래를 잉태하는 힘: ( )

“지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더 거대하고 힘있게 재편된다. 이런 지식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틀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유가치와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에 의해서 그려진 ‘톨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1632)는 최초의 단체초상화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 한 구의 시체를 앞에 두고 7명의 시민이 둘러서서 빨려 들어가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스스로를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은 곧 인류의 미래를 잉태하는 힘이 되었으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은 종교의 암막을 걷고 인류사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였다.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을 정의한다면 분명히 테크놀로지 격변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터널 기술들이 서로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 세대와 한 세대가 만나는 ‘구조접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100년간 변화하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의 개념과 전달 방식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도록 구조화 된 교육은 앞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 전달방식에 의존하던 지식중재자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생산되고 공유되며 개별 경험의 방식으로 소화될 것이다.

캠퍼스 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최고의 석학들과 만나고 토론하는 ‘미네르바’ 대학이나, 세계 최고의 대학 강의들을 전세계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MOOCs 플랫폼, 10개월 만에 끝내는 대학 4년 전공과정인 ‘Nano-degree’, 전달 중심에서 토론과 공유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교실 ‘플립러닝’, 커뮤니티(SNS) 중심의 자발적 참여교육 등, 미래의 교육은 시간과 장소,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더 거대하고 힘있게 재편된다. 이런 지식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틀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유가치와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톨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처럼, 나는 오늘 속에 잉태되고 있는 교육의 미래를 본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미래상(futurity)을 이해하고 현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_피터 드러커



James Roh

